



◎ 권두언 ◎

## 신뢰와 인간애

사회 여러 분야에서 말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안 여러 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찾아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후진의 교육에 힘쓰고 계신 교육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워져 간다고 합니다. 우리를 주변의 모든 것들이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고 그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뒤 처질 수밖에 없는 어

려운 현대적인 생활 여건이 그러하고, 그런 까닭에 사회 구성원이 동료라기 보다는 경쟁자모방에는 보이지 않아 인간적 유대감이 약화되어 간다는 점에서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힘이나 경쟁력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기본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 존재를 관개의 땅으로부터 파편화시키는 폐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염려하는 식자들은 인간 관계의 회복 및 유지를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대의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나아가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까지 윤리와 질서의 붕괴는 우리가 처한 인간 관계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적 만남의 실종에 대한 위기 의식에서 나온 판단이며, 또한 반성을 촉구하



徐廷善

본회 부회장  
영지전문대학 학장

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 사범대학인들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해갈 수 있는 까닭은 바로 동문 상호간에 바람직한 인간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가깝게는 친구라 해도 좋고 또 무난하게 친우라 해도 좋은 사람들이 함께 뜻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인간미가 넘치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ऐसे 사람을 찾아 나서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언제나 커다란 마음의 후원자가 되어 주는 동문이 있

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범대학인들이 자기 종사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인간미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교직에 몸담고 있는 동문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뜻뜻이 사표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갈 수 있는 힘도 여기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교육 현실은 실망스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교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의욕을 갖기 어렵게 되어 있고 교육 수요자는 또 그들대로 불만족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 직급의 고단 탈면입니다. 정치 논리에 따라 교육이 희생되기도 하고 경제 논리에서 후순위로 밀리나 교직자가 흉대를 받기도 하는 이러한 풍토에서 교육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으며, 교직은 성 다음 연애 계속

수련대의 연수내용

# 평생교육의 개념과 필요

金宗西

서울대학교 영예교수



Paul Lengrand의 평생교육에 관한 제언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보낸.

- ② 유네스코에서는 1970년 세계교육의 해의 기본 이념으로 평생교육(life long education) 제창
- ③ 1972년 동경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성인교육대회에서 75개국이 그 나라의 교육제계에 평생교육 개념 수용

## 2) 한국에서의 발전

- ① 1973년 8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평생교육발전 세미나' 개최
- ② 1980년 10월 27일 헌법에 평생교육에 관한 조문 설정 (제29조 5항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 ③ 1982년 12월 31일 사회교육법 제정공포(일본 1949년, 대만 1953년)
- ④ 1987년 10월 29일 개정 헌법 제 31조 5항에 평생교육에 관한 조문 존속
- ⑤ 1996년 교육부 평생교육국(일본 1987년 생애학습국)
- ⑥ 1998년 8월 31일 평생교육법 공포

## 2. 평생교육의 개념

### 1) 정의

평생교육은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이념 추구를 위하여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아교육, 아동교육, 청년

### 1. 평생교육의 발달

#### 1) 유네스코의 공헌

- ① 1965년 12월 유네스코 성 인교육추진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Advancement of Adult Education)에서

교육, 성인전기교육, 성인후기교육, 노인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과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총칭하여 말하며 그것은 개인의 잠재 능력의 최대한의 신장과 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능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학습사회를 건설한다.

#### 2) 특성

- ① 평생교육은 모든 교육을 포섭하는 상위 개념이다.
- ② 평생교육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 ③ 평생교육은 태아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는 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것이다.
- ④ 평생교육은 모든 기간,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것이다.
- ⑤ 평생교육의 목표는 계속적 자아실현과 사회 발전 능력의 신장에 두고 있다.
- ⑥ 평생교육은 계획적인 학습과 우발적인 학습을 모두 포함한다.
- ⑦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학습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 3. 평생교육의 필요

- ① 지식·기술의 급격한 증가 및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학교 교육의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다.
- ② 과학적 사회가 도래하였다.
- ③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인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 ④ 청소년관의 재경험이 요청된다.
- ⑤ 다양한 사회일수록 최대한의 자아실현을 가져오는 교육이 필요하다.
- ⑥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교육의 문제가 부각된다.
- ⑦ 평생 동안에 걸친 인간교육의 필요가 강조되어야 한다.
- ⑧ 세계와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이 평생 동안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수련대회 연수내용

## 아직도 우리는 교육 난국(難局)

金商俊

전 서울시 교육감



가시지 않는 사회적 불신, 교육개혁 피로감, 교원 사회 내부간의 갈등, 선인간으로 불려오는 아이들의 반항 풍등으로 우리들은 고달프다.

이러한 사경을 잠시 헤무 때 본다.

첫째로, 사회적 불신이다. 해방 전후 우리의 학교들은 '지역사회의 문화센터'였으

며 교원은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70년대의 소위 개발 연대를 지나 근래에 와서는 도시 주변은 이인 고소득 고학력의 중산층으로 자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학교의 지실·실비는 뒤지고, 교원들은 그들과 동등하거나 아니면 그 이하의 존재였다. 즉, 교육 기술언이나 도덕(주로 존치문제)면에서 별 것이 아닌 사람들로 비워진 것이다.

둘째로, 이와 같은 사회 시각을 밑으로 당국은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요새와서는 유포착을 쓰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 당국은 교원들을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여겼다.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부패·무능의 대명사로 본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시인 안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 당국자는 대국(大局)을 놓친 것이다. 우리의 그동안의 엄청난 교육 성과를 간과한 것이다.

셋째로 말해야 할 것이 교원사회의 내부적 갈등이다. 학교 내의 경영 집단과 교사 집단 간의 갈등, 노장승(老壯勝)과 젊은 교사들 간의 눈에 안 보이는 골, 교리 단계간의 힘겨루기 등등 전에 없는 반동으로 지금 학교의 교무실은 편안치 않다.

끝으로, 아이들의 '튀는' 문제이다. 그들을 두고 지난 90년대에는 X세대라고 했다. 요새는 N세대라고 부르고 있다. 그들이 하는 것이 모르겠다고 해서 X세대였으나,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정보를 얻고 있으니 당국감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오랫동안 학습보도안을 짜 왔지만, 이제부터는 생활지도 보도안도 작성할 권이 되었다.

생각하면 이러한 어려운 고치는 과거에도 있었다. 그 첫 번째는 해방직후였다. 교실도 교재도 없었던 시절

교원들은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며 가르칠만한 내용을 얻어다가 가르쳤다. 그 때의 교원들은 잃었던 나라를 찾았으니, 이제는 나라의 실력을 쌓자는 결심이었다.

그 두 번째는 6·25전쟁 때이다. 우리 정부가 밀려서 대진으로 대구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까지 갔다. 이러한 막다른 길에서 천막교실을 짓고 마지막 수업이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까지 가르쳤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외면한 적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를 힘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충성이었다.

이번이 세 번째이다. 그 동안의 교육개혁등으로 우리들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 그래서 '자기 가치'를 상실한 지 몇몇 해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 고비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특별한 교육정신을 발휘해 왔다. 그것을 다시 보여줄 때가 되었다. 교육에 관한한 교원보다 장난 권력이나 제도는 없는 것이

### 을지회 회원 모집

서울대 사대 동문 친선 월례 골프모임으로 60여 회원과 12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을지회에서 2003년 신입회원을 모집 중이니 관심있으신 동문께서는 연락바랍니다.

- 모집인원 : 약간명
- 대 상 : 서울대 사대동문으로서 골프에 관심있는 분 (70학번 이후 동문 환영합니다.)
- 입 회 비 : 200만원 (반환 불가)
- 신청 기간 : 2003년 1월 1일 ~ 2003년 2월 28일
- 입회 절차 : 당회 소정의 절차에 의함.
- 문 의 : 회장 이석조 (체육12회, 근호레이먼 회장) 043-254-3816, 011-461-0033  
총무 고유섭 (영어22회, 미켓트 사경) 02-585-5495, 017-252-5485

# 同窓會 消息

## 同門 親睦修練大會 - 산정호수에서

본회는 지난 11월 16일(토)과 17일(일) 이틀동안 산정호수 유스타운에서 동문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2년도 동문 친목수련대회를 개최하였다.

16일 오후3시 신일고등학교 정문 앞에 모인 동문들은 2대의 버스를 타고 수련현을 향해 출발하였다. 산정호수 유스타운에 도착한 동문들은 바로 세미나실에 모여 수련의 시간을 가졌다.

우애-회장은 "주말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는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대회는 예년과는 달리 훌륭한 선배님 두분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연수를 해 주시는 동문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 하였다.

이어서 서울대 명예교수 金宗熙 (교육2) 동문이 '평생교육의 개념과 필요'라는 제목으로 연수를 하였다. 김중서 동문은 "평생교육은 모든 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지속적인 자아 실현과 사회 발전 능력의 신장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연수내용 3쪽 계속)

다음은 전 서울시 교육감 金尙俊 (국어5) 동문이 '이직도 우리는 교육 난국'이라는 제목의 연수를 했는데 "가시지 않는 사회적 불신과 잘못된 교육개혁으로 인한 피로감, 교원 사회 내부간의 갈등과 아이들의 반항으로 우리의 삶은 고달프다."고 하였다. (연수내용 4쪽 계속)

주목 같은 두 노선배의 연수 내용은 광적인 동문들로 하여금 많은 공감을 받았고 아주 유익한 연수라고 입을 모았다.



연수가 끝난 다음 부근 '명문갈비집'에서 무精打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동문간의 친화의 시간을 가졌다.

17일에는 일찍 일어나 인근 한화콘도 온천장에서 목욕으로 피로를 풀었다. 아침 식사후 고석정, 제2명굴, 전망대, 월정리역, 백마고지, 노동당사 등을 돌아보려고 했던 현지 답사는 갑자기 내린 폭설로 일정을 중단하고 아쉬움을 간직한 채 서울로 돌아왔다.

## 2002年 送年會- '진도 복춤'과 함께



2002년을 보내는 송년회가 12월 12일 오후 6시 소공동 롯데 호텔 3층 사이어 볼룸에서 열렸다.

대통령 선거 관계로 송년회 개최 날짜를 세차레나 변경하면서 결국 정계에 있는 동문들은 참석을 자제한 채 16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 MC인 金沈珠 동문의 사회로 송년회가 시작되었다.

우애-회장의 인사에 이어 전 국무총리 鄭元植 동문의 추사와 曹昌燮 학장의 인사가 있었고 2002년 동창회를 빛낸 5명의 자랑스런 동문에게 꽃다발을 증정하였다.

金復文 우리도두복지재단 회장은 종합복지관, 계기노인 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회 집 등을 운영하며 저소득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權潤芳 모교 교수는 한국을대표위원회 부위원장, 세계 올림픽위원회 (IOC) 문화분과 위원으로 국내외로 체육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朴成淳 청소년 인성지도교육원장은 일탈 청소년, 사회부적응 학생들을 지도한 공로로 지난 11월 20일

제12회 天國教育賞을 수상한 바 있다. 그리고 金弼率 장  
 심고등학교 교장은 합리적인 학교 경영과 열성적인 학생  
 지도를 한 공로로 지난 11월 11일 한국교육상학회총연합  
 회에서 주관한 제1회 師道大賞을 수상하였고, 李容秀 세  
 종대학교 교수는 전 대한속구협회 기술위원장으로 지난  
 6월 개최한 한일월드컵 경기를 성공리에 마치는데 중추  
 적 역할을 하여 자랑스런 동문으로 선정되었다.

다음은 전 동창회장 李瑞敦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와  
 전 동창회 상임부회장 裴信鎬 동문에게 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기리고자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이어서 모교 교수이며 중요형문화재 제27호 승주예능  
 보유자인 李愛珠 동문의 지도로 체육교육과 무용부 학생  
 들이 '진도 북춤'을 공연하였다. 진도북춤은 성북세를 이  
 용하여 북을 장구처럼 히리에 고정시키고 추는 춤으로  
 풍물의 흥겨움에 즉흥적으로 구사되는 아름다운 춤사위  
 로 광복한 동문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고가를 힘차게 부른 다음 李應百 고분의 견대로  
 화기에예한 가운데 즐거운 만찬이 있었다. 끝나고 돌아갈  
 때는 동문들이 선뜻한 단력과 다이어리, 책자를 받아주고  
 2002년도 마지막 모임을 마무리 했다.

송년회를 위해 협찬해 준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 ◎ 特別贊助金

- 權相濼 (경시연 4) 안양과학대학 이사장 30만원
- 李鎰鎬 (교 3) 대통령 영부인 100만원
- 禹寅燮 (국 4) 본회 고문 20만원

- 朴冠鎬 (화 4) 동국대 명예교수 30만원
  - 金俊文 (사 5) 우리모두복지재단 회장 50만원
  - 李聖秀 (여 5) 정취평가연구회 회장 30만원
  - 張志植 (역 9) 단국대학교 이사장 50만원
  - 崔泰祥 (역10) 본회 고문 100만원
  - 李瑞敦 (교심1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20만원
  - 李鎰鎬 (제12) 금호개발(주) 회장 100만원
  - 鄭玩鎬 (생16) 한국고원대학교 총장 20만원
  - 權潤芳 (제16)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20만원
  - 金華永 (교17) 삼릉주유소 사장 50만원
  - 下柱仙 (영17)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50만원
  - 文炳學 (수17) 상호지속은행 중앙회 회장 30만원
  - 林春淳 (수17) 한국세무사회 회장 50만원
  - 李超台 (풍18) 스타인티내셔널 사장 10만원
  - 金弼率 (지18) 장심고등학교 교장 20만원
  - 崔容準 (수18) (주)천재교육 사장 200만원
- 달력 300개, 다이어리 300개
- 李鎰都 (풍21) 은곡공업고등학교 교장 10만원
  - 申 重 (수24) 금호건설 사장 50만원
  - 安相濼 (제28) 인천광역시장 30만원
  - 乙玄會 (회장 李鎰鎬) 100만원

#### ◎ 祝賀花環

- 林允深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 辛東一 : 본회 회장
- 申 熾 : 금호건설 사장
- 安相濼 : 인천광역시장

##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癸未年을 맞이하여 우리 동문님들  
 家內 幸福이 가득하고  
 항상 健康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3년 새해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同窓會  
 會長 辛東一 외 任員 일동

# 회비 납입 내역

(2002. 9. 16~2002. 12. 14)

※ 일반회비 납부 상황은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 회장단 · 임원회비

신동일 (제115,000,000)	황재호 (교섭비) 500,000
이석조 (제2) 500,000	류근찬 (제28) 500,000
민홍기 (제6) 500,000	안상수 (제28) 500,000
장완호 (생비) 500,000	임재홍 (제24) 300,000
권요방 (제6) 500,000	

김해자 (22) 50,000	김영태 (22) 50,000	장덕지 (28) 50,000	최옥수 (28) 100,000	정문채 (33) 50,000	(영어)
정학수 (9) 50,000	김영태 (10) 50,000	박 용 (16) 200,000	정봉채 (17) 50,000	김병수 (17) 50,000	김영석 (21) 50,000
김경애 (31) 50,000	권민정 (54) 50,000	(독어)	이광숙 (6) 50,000	(사회)	이태근 (7) 50,000
이홍오 (9) 50,000	신용래 (9) 50,000	이유택 (9) 100,000	이대희 (17) 50,000	권영우 (21) 100,000	윤덕홍 (22) 50,000
조 훈 (8) 100,000					

지장부 (16) 50,000	아무호 (54) 50,000	(지리)	유왕렬 (13) 50,000	신중성 (18) 50,000	양왕열 (18) 50,000	김주환 (21) 50,000	장승구 (38) 50,000	(수학)	최용준 (18) 50,000	김달태 (26) 50,000	(물리)	강규석 (15) 50,000	정근화 (23) 100,000	김용원 (25) 50,000	박찬욱 (25) 50,000	(화학)	김한정 (8) 100,000	최성진 (10) 50,000	신정선 (13) 50,000	김영근 (16) 50,000	김종규 (19) 50,000	황성욱 (21) 50,000	김영두 (25) 50,000	신달문 (27) 5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김태홍 (28) 50,000	(생물)	박수용 (8) 50,000	장근호 (11) 50,000	이재혁 (23) 50,000	임용우 (34) 50,000	(지학)	황승기 (29) 50,000	(가정)	김순동 (9) 50,000	안영진 (19) 50,000	(체육)	이상철 (16) 50,000	정현진 (14) 50,000	윤상열 (17) 50,000	조병훈 (19) 50,000	오영석 (23) 50,000	성경이상 (4명) 200,000
-----------------	------	----------------	-----------------	-----------------	-----------------	------	-----------------	------	----------------	-----------------	------	-----------------	-----------------	-----------------	-----------------	-----------------	-------------------

## 이 사 외 비

(경사)	신재철 (28) 50,000	고필근 (28) 50,000	배호순 (27) 50,000	김광수 (28) 50,000	(교섭)	신동일 (10) 50,000	(교향)	하길중 (18) 50,000	이한복 (18) 50,000	(국어)	박영자 (3) 50,000	박진도 (15) 50,000	최현성 (18) 50,000
손운선 (단장) 50,000													
(영어사)	유시영 (경사) 100,000	박지민 (상7) 50,000	이동해 (상8) 50,000	(교육)	백종서 (12) 50,000	김홍희 (15) 50,000	김희영 (17) 100,000	장태섭 (17) 50,000	김기웅 (22) 50,000	이요봉 (23) 50,000			

자랑스런 동문  
님들 회비 납부  
바랍니다.

## 年會費 納付 案内

동문여러분들의積極的인 참여와協助로 年會費가 계속해서 입금되고 있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창회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 동문들께서는 빠짐없이 회비를 납부해 주십시오.

회비는 1년에 한 번만 내주시면 됩니다. 동창회 활성화에 도움을 주시는 동문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비를 납부하실 때는 졸업회과와 맞수, 성명을 꼭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를 납부하신 동문은 지로 문자를 메기겠습니다.

은행지문번호 : 7521964

입금계좌번호 : 하나은행 (예금주 신동일)

221-910002-43405

### (회비 내역)

- 會長 W1,000,000 以上
- 副會長 W500,000 以上
- 監事 W300,000 以上
- 常任理事 W300,000 以上
- 部長 W300,000 以上
- 次長 W200,000 以上
- 理事 W50,000 以上
- 一般會員 W20,000 以上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同窓會長 辛 東 一

## 同門 動靜

### 近況 / 移動

- **劉秀烈** (제17) 이오도 출판 회장, 전 MBC 제작본부장, 이오도 최영림 르네상스홀에서 PD 연합회와 함께 '2002 방송인상' 시상식 개최 (2002. 12. 16)
- **曹錫珍** (제2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 연구위원, 한국항공교육학회 회장,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항공교육'을 주제로 학술 발표대회 개최 (2002. 12. 13)
- **金明坤** (제29)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연임 (2002. 12. 8)
- **朴贊龍** (제29) 샌프란시스코 기문고 동년 사장, 지난 12. 4부터 8일까지 개최된 2002년 서울 국제 발명 전시회에서 '문연자판'으로 금상, 'English Alphabet layout on the Hand Phone'과 '인터넷측량 플랫폼'로 각각 은상을 받은 등 세 개대상을 받음
- **李惠星** (제69)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장, 본회 부회장, 광주 콩코드 호텔에서 2002 한국청소년 상담자 전국대회 개최 (2002. 11. 20 ~ 20)
- **林春澤** (제17) 한국세무사회 회장, 본회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협력장에서 발표를 시중 개성이 따른 세무사 제도 개선 방안'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2002. 11. 20)
- **朴成澤** (제17) 청소년 인성지도 교육진흥, 제12회 천용훈대훈 수상 (2002. 11. 20)
- **曹昌燮** (제19) 서울대학교 생체화학 학장,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南東學季學大會 개최 (2002. 11. 20)
- **金韓宰** (제19) 장실고 교장, 본회 부회장, 한국교육심리학회와 전국경제인 연합회가 주관한 제1회 南東大會 수상 (2002. 11. 11)
- **金庚子** (제19) 전 인천여자고교 교장, 한국교육심리학회와 전국경제인 연합회가 주관한 제1회 南東大會 수상 (2002. 11. 11)
- **許 叔** (제29) 인천고교 교수, 한국교육심리학회 회장, '교실 교육연구의 동향과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2002. 11. 8)
- **朴熙正** (제29) 경북고 교사, 본회 시립부장

- 서울시교육단체총연합회 제29대 회장 당선 (2002. 10. 30)
- **李柱植** (제17) 걸스카우트 세계연맹 이사회 의의장, 본회 부회장,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0회 세계 이사회 총회 (2002. 10. 25 ~ 31)
- **金仁一** (제19) 서울대 시어 교수, 서울대 초빙연설회에서 '인터넷의 교사 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 개최 (2002. 10. 24 ~ 25)
- **閔丙峻** (제19)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본회 28·29대 회장, 서울 한양호텔에서 '강한 경제를 위한 시장 경제 정책'을 주제로 제2대 전국광고주대회 개최 (2002. 10. 24)
- **鄭興植** (제19) 중앙대 교수, 한국역사학회 회장,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국제학술회의 개최 (2002. 10. 12, 2002 월드 컨퍼런스 및 문화 공연으로 문화관광부로부터 대명품 표창 받음 (2002. 12. 29)
- **李福欽** (제12)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본회 31대 회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29대 총장퇴임기념집 발간 (2002. 9. 27)
- **金萬吉** (제19) 전 대한미술장, 신문공공경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2002. 9. 25)
- **楊根榮** (제29) KBS 보도본부장, 본회 부회장, 대한체육학회 수여하는 제1회 10산(山)인(人)부문 수상 (2002. 9. 16)
- **李錫錫** (제22) 충남대 교수, 한국교육과정평가위원회 상임위원, (2002. 9. 13)
- **鄭泰植** (제19) 전 서울시 교육청 강동교육장, 학교법인 인천연맹 이사장 취임 (2002. 4. 29)
- **朴贊興** (경이상) 전수원 대표이사, 유기농업으로 재배한 순수 국산 곡물을 생산하여 제조한 기능성 건강식품인 선식을 개발하여 사업을 시작함, 주문회 (02) 658-1201

### 慶弔事

- **鄭秋鳳** (제11) 전 경기 구리고 교장, 수석 교장 (2002. 12. 22)
  - **金忠吉** (제16) 충남대 교수, 수석 교장 (2002. 11. 30)
  - **韓德澤** (제17) 대한고교서 고문, 수석 교장 (2002. 11. 30)
  - **黃烈浩** (제18) 영성인도교회 부회장, 본회 부회장, 수석 교장 (2002. 11. 30)
  - **崔海俊** (제19) 수도권고 교장, 수석 교장 (2002. 11. 30)
  - **金宇敏** (제18) 건국대 부속고 수석 교장 (2002. 11. 10)
  - **曹一弘** (제17) 전 성남은행장, 수석 교장 (2002. 11. 10)
  - **李美男** (제17) 전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수산차장, 수석 교장 (2002. 10. 10)
  - **尹錫知** (제17) 청일고 교장, 수석 교장 (2002. 10. 9)
- 
- **李京赫** (제44) 일국방버리지 본지 생물학연구소, 영반 (2002. 12. 19)
  - **申善一** (제27) 가락고등학교 교장, 영반 (2002. 12. 18)
  - **河奉玉** (제19) 전 장문고 교장, 본회 김사 아버지 (2002. 12. 15)
  - **朴載順** (제19) 전 현고교 교장, 영반 (2002. 11. 24)
  - **李瑞錫** (제5) 전 전주교육대 총장, 동계 학교법인 인천연맹 이사장 (2002. 11. 14)
  - **金秀錫** (제17)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아버지 (2002. 11. 8)
  - **洪錫基** (제14) 전 문래동 교장, 동양 영반 (2002. 10. 31)
  - **崔善植** (경이상) 서울대 명예교수, 본회 8·9대 회장, 영반 (2002. 10. 22)
  - **金興珠** (제1) 순천고교 교수, 영반 (2002. 10. 19)
  - **孫敬善** (제17) 한국고교대 교수, 丈人, 영반 (2002. 10. 12)
  - **李錫榮** (제16) 전 남해중 교장, 동양 영반 (2002. 10. 9)
  - **廉 純** (경이상) 영반 (2002. 10. 1)